현대패션에 표현된 움직임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박은경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조교수

복식은 특수 조형 예술의 한 분야로 간주되며 다른 조형 예술과는 달리 인체에 착용된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따라서 복식은 복식 자체에 의해 구현되는 미적 특성과 함께 인체와 관련되어 구현되는 미적 특성을 갖는데 이러한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 중의 하나로 '움직임'의 표현을 들 수 있다.

현대 패션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표현이 1910년대 미래파의 전위의상에서 최초로 시도된 이후 1960년대에 옵티컬 아트(optical art), 키네틱 아트(kinetic art)의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의 패션에까지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대 패션에 나타난 움직임의 표현은 단일하거나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발달 및 이와 관련된 예술, 사회 문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1960년대의 옵티컬 아트, 키네틱 아트의 조형적 특징에만 근거하여 다루어져 온 한계를 갖는다. 또한 연구 대상의 시기도 주로 1990년대 중반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1990년대 이후 하이테크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문화와 예술의 확산 및 이에 따른 특징과 시대적 의미를 갖는 21세기의 '움직임' 표현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표현된 움직임의 미적 특성을, 1910년대부터 2004년까지를 연구 시기로 하여 사적 고찰과 미적 연구가 일정 정도 선행된 '움직임' 예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움직임'의 사전적 정의와 특성을 밝히고 본 연구에서의 의미를 정의한다.

둘째, '움직임'의 표현과 관련된 현대 예술사조를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사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움직임'을 표현한 예술의 조형성과 내적 의미를 분석한다.

셋째, '움직임'의 표현과 관련된 현대 패션을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사적으로 고찰하고 예술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대패션에 표현된 움직임'의 미적 특성을 조형성과 내적 의미로 분석한다.

연구 방법은 예술사 및 복식사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 연구와, 패션 관련 서적, 패션 컬렉션지, 패션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디자이너 컬렉션 사진을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움직임은 사전적 정의와 예술과 현대 사회의 맥락을 고려하여 율동을 갖는 흔들림, 떨림뿐만 아니라 변형이나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움직임을 표현한 현대 예술은 키네틱 아트, 옵티컬 아트, 레이저와 홀로그램의 라이트 키네틱 아트, 비디오아트, 컴퓨터 아트 등의 테크놀로지 아트로서 흐름이 이어져 왔다. 또한 현대 예술에 표현된 움직임의 미적 특성은 조형성 측면에서 상호 침투성, 가시성 증대, 비전통적 재료, 역동성으로, 의미 측면에서는 확장성, 기술 긍정, 참여성, 삶과 예술의 결합으로 분석되었다.

움직임을 표현한 현대 패션은 20세기 초의 아방가르드 패션, 60년대의 옵아트·키네틱 패션, 90년대 중반 이후의 테크노 사이버 패션으로 이어졌다. 또한 현대 패션에 표현된 움직임의 미적 특성은 조형성 측면에서 비한정성, 빛·옵아트 패턴·홀로그램의 비전통적 재료, 모빌 효과·형태 가변의 역동성으로 분석되었으며, 의미로는 확장성, 기술 긍정, 참여를 통한 유희성으로 정리되었다.

특정한 디자인이 나타나는 현상에 통합적 시각으로 접근한 본 연구 결과가 창의적 패션 디자인 교육과 상품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